민주신당, 원내 제1당 재탄생

과제와 전망

‘도로 우리당’ 꼬리표 떼기 최대 관건

우리당 흡수 합당… 의석수 143석으로

민주와 결합 실패, 후보단일화 미지수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주신당으로의 흡수합당을 결의함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원내 제1당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민주신당은 ‘제3지대 신당’으로 출범한 지 불과 15일 만에 85석의 의석수에 우리당 58석이 보태지면서 한나라당 의석(129석)보다 14석이 많은 143석의 거대정당이 됐다

양당의 합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이 20일 만나 합당을 결의한 뒤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완료된다.

그러나 양당의 결합으로 범여권 통합 작업이 일단락됐지만 곳곳에 숱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범여권 대통합은 민주당과의 결합에 실패함에 따라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꼬리표를 안게 됐으며 범여권 단일 경선도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느냐도 과제다.

특히, ‘도로우리당’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문제는 민주신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합당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범여권 중심축으로서의 좌표 설정에 안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대대적 쇄신과 정풍운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목표로 이합집산식의 ‘헤쳐모여’를 하다다보니 정책과 노선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노선투쟁이 예상된다.

김효석 원내대표가 “새롭고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잡탕정당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당직과 중앙위원, 상임중앙위원 배분과 등을 둘러싼 계파간 지분 다툼이 확산된다면 당내 분란은 상당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이 같은 내부 현실에서 현실정치 경험이 전무한 시민사회 출신 대표가 난마처럼 얽힌 당내 이해관계를 순탄하게 헤쳐가며 주자간 ‘페어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민주신당 측에서는 합당과 함께 무게중심이 후보 중심으로 이동하는 만큼, 초기의 혼란스러움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에 그친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을 내세우며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않고 당내 지분다툼과 현역의원 줄 세우기 등 구태를 반복한다면 한나라당 우세의 대선 구도를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덱스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 및 ‘정치적 해체’를 선언했다.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의원들이 민주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 주자 경선 전략 막판 손질

孫 필승론으로 정면 돌파

鄭 맞춤형 후보 전략 구사

李 정통성 후보 부각 주력

韓 친노 진영 1위 탈환 전력

범여권 주자들이 경선전 시작을 앞두고 실전 전략 구상에 들어 갔다.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친 대통합민주신당은 21~22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달 3~5일 예비 경선,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 경선을 한다.

민주신당 후보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2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캠프별로 한나라당에 맞설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선거구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손학규 필승론’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범여권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층의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손 전 지사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전력이 자산이라는 ‘효자론’을 내세우는 등 과거사에 대한 정면돌파 전략을 세웠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범여권 주자 간 차별화보다는 한나라당 후보와의 전면전을 통해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후보가 될 경우 ‘청계천 대 개성공단’, ‘대운하 대 대륙철도’, 박근혜 전 대표가 될 경우 ‘개발독재 세력 대 미래평화세력’ 구도로 대립각을 확실히 세워 맞춤형 후보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10년 민주개혁정권의 적자 후보’라는 점과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충청출신 후보로서 충청권의 지지까지 이끌어낼 후보라는 강점을 적극 알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또 ‘정통성’에 근거해 손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확실하게 각을 세워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예비경선이 끝나면 자신이 제안한 친노 진영의 후보 단일화 구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친노 진영 내 1위 탈환에 전력투구한다는 전략이다. 1위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있어 세세한 경선 전략은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신 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에게 당 운영권과 공천권을 모두 몰아주는 ‘원샷 대통합’ 제안으로 경선판의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유시민 대선 출마 공식선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이 주관하는 ‘1만 유티즌 전국 대번개’ 행사에 참석,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출마선언에 앞서 출마의 전제조건으로 지지자들에게 5가지 약속을 받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다.

그는 “제게 출마를 요구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냐”, “정정당당한 선거운동만 하겠느냐”, “패배한 후보를 다 안고 가게 해주겠느냐”라고 물었고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답했다.

그는 “제가 1등을 못하면 민주개혁진영의 정통성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도 되겠느냐”, “대통령이 되면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고 물은 뒤 긍정적 답변을 받자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지구촌 전체를 무대 삼아 발전하는 선진통상국가 ▲국가가 국민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하는 사회투자국가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평화선도국가 등 3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신당 경선 참여

추미애 전 의원이 19일 민주신당에 입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의원은 19일 “대통합의 깃발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겠다”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참여를 공식선언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결단은 대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대통합 민심을 폭발시켜 반드시 12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광로 대통합론’을 강조해왔던 추 전 의원은 “대통합은 민주세력의 통합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지역·계층·세대 간 분열을 뛰어넘어 한반도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는 대통합이라는 과제 앞에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대통합민주신당 합당결의와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다. 제가 요구했던 의미의 우리당 해체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분열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대통합이라는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승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패·투기·고발·음모가 난무한 한나라당 경선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범여권, 한나라 경선 결과 주시

“누가 되든 흠결 많아 관계없어”

범여권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19일 실시된 한나라당 경선 투표와 관련, 관전자 입장에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중 누가 본선에 나서느냐에 따라 앞으로 시작될 범여권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신당 정대화 대표 비서실장은 “이 전 시장이 당선되면 차명재산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을 ‘천형’처럼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박 전 대표가 당선되면 정책적 돌파력이 없고 70년대 부채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렵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투표일까지 카메라폰 촬영문제가 불거지는 등 한나라당 경선이 끝까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누가 후보로 나서든지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범여 대선주자들도 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과 유·불리 분석에 나섰다. 민주신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의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경선은 투표일까지 매표논란으로 얼룩지는 등 역대 경선 중 가장 추악한 경선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와 견주어 범여권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가려질 것이므로 경선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측의 정청래 의원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전 시장이 되면 ‘대운하 대 대륙철도, 청계천 대 개성공단’의 대결이 될 것이고 박 전 대표가 되면 ‘독재후예 대 민주화세력의 대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측의 양승조 대변인은 “고소고발과 이전투구식 경쟁으로 민주적 경선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한나라당 경선을 총평하면서 “두 후보자가 모두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시대정신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범여권 단일후보가 나서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